

# 멕시코혁명 및 혁명 후 체제에 대한 연구 동향의 변화

-1980년대 말 이래 영·미 학계의 연구를 중심으로

박 구 병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강사)

## I. 서론

1910년 11월 프란시스코 마데로(Francisco Madero)의 산 루이스 포토시 강령(Plan de San Luis Potosí) 발표로 촉발된 멕시코혁명은 최소한 향후 10년 간 전국 주요 지역을 휩쓴 일대 격변이었다. 마데로는 35년 동안 지속된 포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íaz, 재임 1876-1880, 1884-1911)의 독재체제에서 배제 당한 북부 지방의 아센다도(hacendado)와 중간계급의 자유주의적 개혁운동을 대표했는데, 그의 투쟁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반란의 회전목마’<sup>1)</sup>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저항, 북부 소노라와 치와와 주민들의 항거와 에밀리아노 사파타(Emiliano Zapata)를 주축으로 한 중부 모렐로스의 농민 봉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디아스 체제뿐만 아니라 19세기 중엽 이래 멕시코 정치의 자유주의적 전통까지 뒤흔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집권에 성공한 혁명 세력은 진보적인 색채를 띤 1917년 헌법을 탄생시켰고, ‘소노라 왕조’(1920-1934)와 라사로 카르테나스(Lázaro Cárdenas, 재임 1934-1940)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통해 멕시코에선 아시엔다(hacienda) 중심의 대토지 소유제와 채무노예제가 몰락하고 혁명 대중이 국가 체제 내로 통합되었다. 또한 카르테나스는 자원 및 주요 시설의 국유화를 통해 혁명적 민족주의를 고양시켰고 농민과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면서 민중주의 정치·경제 체제의 기틀을 다졌다.

어떤 혁명을 막론하고 그 시기를 구분하고 성격을 따져 보는 것은 어떤 세력을 중심으로 혁명을 파악할 것인가라는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최초의 멕시코혁명사 서술은 혁명에서 승리한 입헌파(Constitutionalistas)나 북부 출신 ‘소노라 왕조’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 친(親)혁명파의 해석은 일찍이 1920년대부터 정통해석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에 따르면 멕시코혁명은 엘리트적, 권위주의적, 외세 의존적인 디아스의 구체제에 대항한 ‘농민 중심적, 민족주의적인 대중 운동’이었다.<sup>2)</sup> 이런 배경 속에서 실제 1910-1920년 혁명의 군사적 국면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주목을 끌었던 사파타 운동이 혁명 후 정권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멕시코혁명의 대표주자로 부각되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사파타는 그를 패배시킨 세력이 정권 장악 후 손질한 혁명 신화에 따라 영웅으로 다시 탄생한 것이었다.<sup>3)</sup> 반면 혁명 신화나 ‘혁명의 제도화’ 선전에 반발한 이들은 1960년대 말부터 멕시코혁명과 혁명 후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런 수정주의적 해석은 입헌파를 위시한 멕시코혁명의 마지막 승리자들이 구축한 ‘혁명 정부’의 성격과 대중 포섭 전략의 정치적 의도, 그리고 혁명과 근대성의 관계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는 넓게는 멕시코혁명 전반, 좁게는 혁명의 상징으로 일컬어진 사파타 운동이나 카르테나스 체제에 대한 기존 친혁명파의 해석과 ‘좌파 수정주의’ 및 ‘보수주의적 수정주의’

1) Fernando Mires, *La Rebelión Permanente: Las revoluciones sociales en América Latina*, México, D.F.: Siglo Veintiuno Editores, 1988, p.158.

2) Alan Knight, “Revisionism and Revolution: Mexico Compared to England and France,” *Past & Present* 134 (1), 1992, p.161.

3) Irene O'Malley, *The Myth of the Revolution: Hero Cult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xican State, 1920-1940*, New York: Greenwood Press, 1986, pp.113, 119.

해석을 살펴보고, 1980년대 말부터 미국과 영국 학계에서 등장한 새로운 연구 경향, 즉 탈(脫)수정주의 해석(post-revisionist view)과 ‘새로운 문화사’ 연구를 중심으로 멕시코혁명 연구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쉽게도 멕시코 연구자들의 최근 성과, 특히 다양한 지방사 연구를 거의 반영하지 못했지만 이 글에서는 영·미 학계에서 이루어진 멕시코혁명과 혁명 후 체제의 정치·문화적 성격에 대한 논의의 변화와 그 주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II. 멕시코혁명의 시기 구분

### 1. 혁명의 군사적 국면

디아스의 독재체제에 도전한 북부 세력의 반란은 그 뒤 10년 동안 멕시코 전역을 무대ろ한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멕시코혁명은 초기에 ‘공정선거, 재선반대’라는 마테로파의 강령과 ‘토지와 자유’로 대표되는 사파타 운동을 주축으로 두 갈래의 흐름을 유지했다. 전자는 디아스의 독재와 측근 정치, 그리고 재선(再選)에 반대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실시와 ‘1857년 자유주의 체제’의 재건을 주장한 북부 지방 부르주아 및 중간계급 지식인들의 정치개혁 요구였다. 후자는 대토지 소유제와 상업적 농업의 팽창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필사적인 저항이었다. 마테로는 혁명을 시작했지만 그것을 통제하지는 못했다.

1913년 2월 마테로가 자유주의적 이상을 펼치지 못한 채 디아스의 측근 빅토리아노 우에르타(Victoriano Huerta)에게 살해당한 뒤에는 다시금 여러 혁명 세력의 무장 봉기가 전국에서 발생했고 우에르타가 물러난 1914년 여름에 이르러선 혁명과 간의 대립과 각축이 가시화되었다. 바야흐로 ‘서사시’는 ‘비극’이 되었고,<sup>4)</sup> 혁명 투쟁은 디아스의 독재를 넘어 과도제적 자유주의 국가체제 자체의 붕괴를 가져왔다. 멕시코의 저명한 시인이자 철학자 옥타비오 파스에 따르면, 독재체제와의 단절을 시도한 혁명은 극단으로 치달은 “환희의 소란과 총탄 세례의 축제”였으며 혁명 사상이라고 할 만한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의 폭발”이었다.<sup>5)</sup>

이런 정치적 공백 속에서 농민들이 중요한 혁명 세력으로 떠올랐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체제를 수립할 능력이 부족했다. 곧이어 북부 지방 출신의 중·소 부르주아지가 혁명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했다. 1916년 베누스티아노 카란사(Venustiano Carranza)와 입헌파의 승리가 뚜렷해진 뒤 소집된 제헌의회에서는 급진파와 온건파 사이의 대립이 있었지만, 1917년 헌법이라는 중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1917년 헌법은 내전을 마감하는 사회적 협정으로서 인민주권과 권력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대의제적 민주주의와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 중심제, 여러 대중 집단을 체제 내로 끌어들이는 담합주의적(corporativo) 요소가 결합된 것이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혁명 세력의 요구사항을 집대성한 1917년 헌법의 제정, 또는 1920년, 더 나아가 1940년까지를 혁명기로 설정할 수 있다. 미초아칸 주 서부의 작은 촌락 산 호세 데 그라시아의 역사를 조망한 『흔들리는 마을』(Pueblo en vilo)을 통해 미시사의 모범을 선보인 루이스 곤살레스는 1910-1942년을 여전히 폭력이 난무하는 파괴적인 혁명의

4) “혁명이 폭군에 맞서 싸울 때, 그것은 서사시이다. [하지만] 혁명이 그 자신과 싸울 때, 그것은 비극이 된다[...] 판초 비야의 운명은 서사시로부터 비극으로 변해가는 궤도 안에 새겨져 있다.” Carlos Fuentes, trans. by Alfred Mac Adam, “Centaur of the North,” *Los Angeles Times Book Review*, Sunday, April 4, 1999, p.2.

5) 옥타비오 파스 (손관수 옮김), 『고독한 미로』, 신원문화사, 1990, pp.162-163.

시대로 바라보지만,<sup>6)</sup> 대다수 연구자들은 1920년 이후 시기를 이전의 ‘군사적 국면’ 또는 ‘구체제의 해체기’와 구별되는 ‘제도화 국면’으로 규정한다. 멕시코혁명을 1910년부터 194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1910-1920년의 시기는 각 지방의 실력자들이 대중 동원과 무장투쟁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고자 상쟁하는 단계로, 또 1920년 이후는 권좌에 오른 혁명 세력이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요구를 선택적으로 포섭하면서 이른바 ‘혁명 가족’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안정화 국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 2. 혁명의 제도화 국면과 카르테나스 집권기

치열한 무장 투쟁의 시대 이후 1940년 라사로 카르테나스의 집권이 끝날 때까지 이른바 ‘혁명의 제도화’ 국면이 펼쳐졌다. 1923, 1927, 1929년에 권력 승계를 둘러싸고 발생한 일부 군 세력의 반란과 구체제 세력, 특히 지역적 기반을 지닌 카우디오(caudillo)의 경제력 강화가 새로운 국가 수립에 위협 요인이 되었을 때, ‘소노라 왕조’ 세력은 혁명 세력을 결집시키고자 1929년 3월 <민족혁명당>(PNR)을 창설했다. 이는 지방에 대한 ‘혁명 정부’와 대통령의 지위 강화를 피하려는 것이었다. 집권 세력이 조직한 ‘혁명 정당’을 통해 어떤 한 분파나 계급이 아니라 복합적인 관료 집단의 헤게모니가 확립되었고,<sup>7)</sup> ‘혁명 정당’은 혁명의 군사적 국면에서 활약한 북부 세력의 주도 아래 농민과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효과적인 타협 구조를 만들면서 ‘혁명의 제도화’를 이루고자 했다.

관료 집단은 1935년 이래 카르테나스 체제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카르테나스는 임기 동안 토지 및 농업 개혁, 석유회사의 국유화와 같은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혁명기에 동원된 대중을 ‘혁명 정당’의 한 축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될 일당 지배 체제와 국가 주도 경제의 틀을 구축했다. 멕시코혁명의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는 ‘혁명 정당’은 PNR→PRM(멕시코혁명당, 1938)→PRI(제도혁명당, 1946)로 이어지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록적인 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1989년 바하 칼리포르니아(Baja California)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행동당>(PAN) 출신 인사가 처음으로 주지사에 당선될 때까지 ‘혁명 정당’은 연방 행정부는 물론 주 정부의 권력을 놓친 적이 없었다.

또한 1938년 3월 18일 외국계 석유회사의 유상 몰수와 국유화 선언을 통해 카르테나스는 ‘혁명적 민족주의’를 과시하면서 국가 주도 경제의 기틀을 다졌다. 적어도 이런 경제 체제는 대외 개방과 세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간과해서는 안 될 또 다른 혁명의 장기적인 성과로는 카르테나스가 이룬 정치의 탈(脫)군사화를 거론할 수 있다. 원래 군의 전문화 과정이 늦었던 멕시코에서는 혁명을 통해 연방군의 조직이 와해된 뒤 1930년대 중반 이래 중앙 정부가 지방 군벌의 발호를 제어함으로써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일찍이 정치의 탈군사화를 이룩했다.<sup>8)</sup> 1920년대 이래 혁명 세력의 반교권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치·경제적 권력을 크게 상실한 가톨릭교회에 이어, 군대 역시 1930년대 말 이래 대통령과 민간 관료 집단의 효과적인 통제 아

6) 곤살레스에 따르면 이 시기 동안 ‘멕시코혁명, 크리스테로(cristeros) 혁명, 농업혁명’ 등 세 가지 혁명이 이어졌다. Luis González y González, *Pueblo en vilo: Microhistoria de San José de Gracia*,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84(c1972) 참조.

7) Juan Felipe Leal, *México: estado, burocracia y sindicatos*, México, D.F.: Ediciones el Caballito, 1975, pp.37, 40-41.

8) 줄고 「연장된 카르테나스 체제: 라사로 카르테나스(Lázaro Cárdenas)와 멕시코 정치의 탈군사화, 1938-1945」, 『서양사론』 제72호, 2002, pp.75-105 참조.

래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 3. 1940년 이후 혁명 세력의 변화

온건 성향의 마누엘 아빌라 카마초(Manuel Ávila Camacho)가 카르데나스의 뒤를 이은 1940년 이후 멕시코에서는 급진적인 대중 친화적 정책이 쇠퇴하고 정치적 양극화의 조짐이 생겨났다. 대중통합을 주도한 정당의 지도자들이 권좌에서 밀려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멕시코에서는 정권의 연속성이 유지되었지만,<sup>9)</sup> ‘혁명 정당’은 점차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고 동맹 내에서 좌익 세력을 배제하며 보수적인 동맹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방향 선회의 조짐은 이미 카르데나스 말기에 나타났다. 카르데나스의 민중주의적 발전 전략은 1938년 중반 이래 보수적 반발에 직면하면서 그 흐름을 서서히 바꾸었고 세계대전과 뒤이어 냉전 시대 동안 후속 정권이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확실한 모델을 제공한 바 있다.

1940년대 초부터 길게는 1980년대 초까지, 짧게는 1968년까지 ‘멕시코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고도성장 시대가 지속되면서 ‘혁명 정부’는 ‘경제적, 산업적 기적’의 주도자로 변모했다. 아빌라 카마초는 집권기의 목표를 “국민적 단합, 생산을 위한 투쟁, 기계와 학교, 국제적인 평화, 모든 이들을 위한 정부”로 요약하기도 했다.<sup>10)</sup> 1940-1950년대 ‘산업혁명,’ 달리 말해 수입대체 산업화의 주역으로서 멕시코 정부는 값비싼 수입품을 줄이고 높은 보호관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 했다. 또 정부는 약 500여 개에 이르는 공기업을 통해 천연자원을 관리하고 주요 사업을 집행하며 국가가 경제 전반의 운영을 좌우하는 후발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 시기 동안 ‘혁명 정부’는 관료 집단의 헤게모니 아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성취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공고화와 효율적인 승계 구조의 확립이 정치적 안정의 열쇠였다. 그리하여 1940년 대통령직 승계를 둘러싸고 큰 정치적 위기를 겪은 뒤, 정부는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배 체제를 위협하는 대립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요구 및 협상은 정부 조직이 흡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만 했고 용인된 협상의 범위와 규칙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철저히 진압되었다. ‘혁명 정부’는 예컨대 1958-1959년 발생한 철도파업과 북부지방에서 전투적인 <멕시코 노·농 연합>(UGOCM)이 주도한 토지 습격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는 제도적 포섭이 아니라 물리력에 의존했다.<sup>11)</sup> 1950년대 집권 ‘혁명 정당’은 여전히 혁명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면서 민중 세력과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차츰 일당 지배의 권위주의적 면모가 가시화되었다.<sup>12)</sup>

## III. 혁명의 성격에 관한 논쟁

### 1. 친(親)혁명파의 고전적 해석

9) Ruth Berins Collier and David Collier, *Shaping the Political Arena: Critical Junctures, the Labor Movement, and Regime Dynamics in Lati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403.

10) González y González, op.cit., p.185.

11) Héctor Aguilar Camín & Lorenzo Meyer, trans. by Luis Alberto Fierro, *In the Shadow of the Mexican Revolution: Contemporary Mexican History, 1910-1989*,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3, p.200.

12) Collier & Collier, op.cit., p.406.

1920년대 말 이래 친혁명파의 고전적 해석, 달리 말해 집권 ‘혁명 정당’의 공식 해석에 따르면, 멕시코혁명은 디아스 체제와 외국 착취 세력에게 억압받은 대중, 특히 농민들의 변혁 운동이며 민족주의적 색채를 띤 ‘아래로부터의 사회혁명’이었다. 1876년 집권에 성공한 포르피리오 디아스는 ‘질서와 진보’를 신봉한 ‘과학파’(los científicos)를 등용해 정부 주도의 근대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소수의 지주들과 외국 기업에게 특혜를 베풀고, 토지 및 농업의 상업화와 정치적 중앙집권화, 측근을 제외한 세력의 정치적 배제를 바탕으로 한 과두지배 체제를 구축했다. 파스의 말을 빌리면, 디아스는 멕시코에 식민지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봉건제’를 가져왔다.<sup>13)</sup> 이런 디아스 체제에 대한 항거는 발생 지역과 적극적인 참여자의 편차에 따라 ‘토지와 자유’를 쟁취하려는 자율적인 ‘농민(agrarista)혁명’이나 ‘산지인(山地人, serrano)의 혁명’<sup>14)</sup>으로 인식되었다. 더욱이 멕시코혁명은 시기적으로 러시아혁명을 앞설 뿐 아니라 지속 기간과 기존체제의 파괴라는 측면에서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에 못지않았다.<sup>15)</sup> 1910년 발발한 멕시코혁명은 ‘20세기 최초의 사회혁명’으로서, 말하자면 멕시코를 영원히 변화시킨 ‘강력한 해일’이었던 셈이다.<sup>16)</sup> 이에 따라 ‘혁명 정부’는 디아스 시대의 구체제를 ‘악의 화신’으로 그리면서 사파타와 판초 비야 같이 패배당한 대중 지도자들을 사회혁명의 주역이자 새로운 ‘혁명 체제 건설의 아버지’로 격상시켰다.<sup>17)</sup> 그리하여 민중혁명의 신화적 존재가 된 비야는 민중가요 속에서 여전히 말을 타고 북부 지방을 달리고 있으며 사파타는 서민 시장이 열릴 때마다 죽고, 카란사와 오브레곤은 혁명 열차를 타고 전 국토를 왕복 여행하게 되었다.<sup>18)</sup>

혁명 유산의 상속자들은 정치, 사회·경제, 문화적 권력을 장악하고, 이런 신화를 적극 활용해 ‘혁명의 제도화,’ 즉 지속적인 혁명을 설파했다. ‘혁명 정당’은 상호발탁(co-optation)을 통해 당과 여러 대중조직 간의 연계를 확대하면서 포괄적인 구조를 이루는 한편 대중조직 간 수평적 연대를 제약하는 분할통치 방식을 유지했다. 통합적인 지배 정당으로서 ‘혁명 정당’은 혁명 이념의 활용 및 조작을 통한 정당성 유지와 대중 동원, 노·농 조합 지도부와 의 긴밀한 유대 확립으로 반대 세력의 도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멕시코 정치체제의 특징은 ‘당근과 채찍’의 결합이었다. 즉, 정부는 중앙집권적 조직을 강화하고 조정과 타협, 정치·경제적 포섭을 활용한 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하면서 일당 지배 체제를 구축했다. 반대세력에 대해 주로 노골적인 억압과 배제를 실행한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멕시코 정치는 발탁과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 연구자는 이를 ‘일당 민주주의의 실험’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sup>19)</sup>

13) 파스, 앞의 책, p.145.

14) Alan Knight, *The Mexican Revolution Vol 1: Porfirians, Liberals, and Peasa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p.301-309.

15) 프랭크 탄넨바움을 위시한 1920-1930년대 미국 학계의 연구 역시 이런 평가의 확산에 기여했다. Frank Tannenbaum, *The Mexican Agrarian Revolu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29; Eyler N. Simpson, *The Ejido: Mexico's Way Out*,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37.

16) Eric Van Young, “Making Leviathan Sneeze: Recent Works on Mexico and the Mexican Revolution,”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34 (3), 1999, p.145.

17) 1919년 4월 10일 사파타가 피살된 뒤 어떻게 ‘순교자’로 부상했으며 사파타 신화와 숭배가 확산되었는지를 추적한 새뮤얼 브룬크의 연구는 이 점과 관련해 무척 시사적이다. Samuel Brunk, “Remembering Emiliano Zapata: Three Moments in the Posthumous Career of the Martyr of Chinameca,”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78 (3), 1998, pp.463, 466.

18) 파스, 앞의 책, p.162.

E. J. 홉스봄은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를 다룬 글에서 1960년의 여론 조사에 나타난 멕시코인들의 혁명 인식을 소개한다. 이에 따르면 30%의 멕시코인들이 여전히 자국의 정치적 전통에 대해 긍지를 느끼고 있었다. 더욱이 조사 대상 중 거의 50% 가량이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평등, 농업개혁, 그리고 민족의 독립과 같은 멕시코혁명의 이상과 목표를 언급하곤 했는데,<sup>20)</sup> 이는 ‘혁명의 제도화’ 신화나 혁명 친화적 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1940년까지 혁명기로 설정하는 것은 ‘혁명의 완결’이라고 알려진 카르테나스의 집권기를 염두에 둔 것인데, 루이스 곤살레스는 특히 1940년 10월 카르테나스가 산 호세 데 그라시아에 도착해 마을의 사제이자 1920년대 말 ‘크리스테로 혁명’을 주도한 바 있던 페데리코 곤살레스와 포옹한 장면을 포착한다. 곤살레스에 따르면, 이런 행위를 통해 카르테나스는 대중의 우상이 되었다. 대체로 혁명의 위인들을 혐오한 마을 사람들은 판초 비야와 더불어 카르테나스를 예외로 삼았는데, 그것은 카르테나스를 단지 토지분배의 실행자로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지 않는 자비로운 인물, 종교적 탄압을 가하지 않고 평화를 가져온 인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sup>21)</sup>

미국의 정치학자 노라 해밀턴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멕시코의 혁명 후 체제, 특히 카르테나스 시대에 초점을 맞춘다. 해밀턴은 카르테나스 집권기를 다른 시대와는 달리 정부가 외세를 포함한 지배 계급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누렸던 시기로 기술하면서 카르테나스가 노동자 및 농민층과 진보적인 동맹을 이루어 기존 자본주의 질서의 제약 속에서도 멕시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sup>22)</sup>

이렇듯 친혁명파의 해석에 따르면 카르테나스 시대는 1910년 시작된 멕시코혁명의 절정이자 종장(終章)이었다. 1930년대 미국인들에게도 카르테나스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견줄 수 있는 민주주의자로 비춰졌다. 보수주의자들은 카르테나스를 ‘반(反)멕시코적인 공산주의 반역자,’ 또는 혁명의 이상을 부정하는 위험한 급진주의자로 보았지만, 친혁명파는 카르테나스를 뿌리 깊은 대중의 불만을 최종적으로 처리한 인물로 평가했다. 이들에 따르면 카르테나스는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디아스 시대의 아시엔다 체제를 무너뜨리고 약 1,800만 헥타르의 농경지를 약 80만에 이르는 토지 없는 농민들에게 분배했으며 철도 및 석유 국유화 정책을 통해 경제적 민족주의를 실현했고 실질임금 상승과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의 교섭력 증진을 이끌었다. 즉, 농민과 조직 노동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면서 이들과 강력한 동맹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베르토 모에노에게 카르테나스는 “멕시코와 동일한 존재”였다.<sup>23)</sup>

## 2. 수정주의적 해석

19) Frank R. Brandenburg, *Mexico: An Experiment in One Party Democrac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56.

20) Eric J. Hobsbawm, “Nationalism and Nationality in Latin America,” in Bouda Etemad, Jean Baton, and Thomas David, eds., *Pour une 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internationale: mélanges offerts à Paul Bairoch*, Geneva: Édition Passé Présent, 1995, p.322.

21) González y González, op.cit., pp.173, 180-181.

22) Nora Hamilton, *The Limits of State Autonomy: Post-Revolutionary Mexico*,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pp.239-240.

23) Roberto Blanco Moheno, *Tata Lázaro: vida, obra y muerte de Cárdenas, Múgica y Carrillo Puerto*, México, D.F.: Editorial Diana, 1972, p.432.

하지만 점차 ‘혁명의 제도화’라는 공식 이데올로기가 지니는 공허함과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멕시코의 경우 역시 혁명기의 민중동원과 사회·경제적 변혁 시도가 대체로 정치 권력의 집중과 강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통치로 귀결되는 ‘사회혁명의 역설’을 드러냈던 것이다.<sup>24)</sup> 1950년대 이래 ‘멕시코의 경제 기적’은 높은 성장률, 안정적인 폐소화, 낮은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발전 모델을 선보였지만,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특히 전통적인 농업 부문을 크게 위축시켰다. 멕시코의 지식인 계층과 젊은이들은 1950년대 말 철도 및 공공 부문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과 1962년 5월 ‘제2의 사파타’로 알려진 모렐로스의 농민 운동가 루벤 하라미요(Rubén Jaramillo)의 피살을 목격하면서 더 이상 ‘혁명 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물가안정과 고도 성장이 지속되었지만 쿠바혁명의 영향으로 정치적 급진화가 두드러졌고 집권 세력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부정부패는 대중의 환멸을 부추겼다. 그리하여 멕시코혁명의 적자(嫡子)로서 ‘혁명 정당’이 누리던 헤게모니는 이미 1968년 10월의 틀라텔롤코(Tlatelolco) 학살 이전에 침식되기 시작했다. 이는 유명 작가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소설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죽음』(1962)뿐 아니라 연구서 『멕시코혁명은 죽었는가?』(1966)의 제목에서도 잘 드러났다.<sup>25)</sup>

1968년 전 세계를 휩쓴 학생 및 지식인들의 항거와 동일한 과장으로 전개된 멕시코 청년들의 투쟁은 결국 10월 2일 틀라텔롤코 학살의 희생제물이 되었다. 멕시코시티 하계 올림픽 개최를 두 주 앞두고 도시 북쪽 틀라텔롤코의 ‘세 문화 광장’(La Plaza de las Tres Culturas)에서 ‘혁명 정부’의 경찰과 군대가 정치범 석방과 경찰의 학교 주둔 중단을 요구한 학생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해 참가자 약 200여 명을 살해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었다. 앞서 수개월에 걸쳐 계속된 전국적인 학생 시위와 파업은 <제도혁명당> 구스타보 디아스 오르다스(Gustavo Díaz Ordaz) 정권(1964-1970)의 강경 대응을 야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그런 비극적인 사태를 예견하지는 못했다. 이 사건은 수많은 멕시코 인들에게 큰 충격을 던졌으며, ‘혁명의 제도화’가 과산했음을 분명히 알려 주었다.

‘혁명 정부’에 대해 전면적인 도전을 주도한 이들은 멕시코시티 대학의 학생과 교원들이었다. 이들은 민중을 포섭해 그 독자성을 약화시키는 ‘혁명 정부’의 폐쇄적인 권위주의에 항거했다. 틀라텔롤코 학살을 통해 각성된 이들은 새로운 민중 세력의 연대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중 일부는 지역 근거지를 마련해 게릴라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0년대 초 교사 출신 루시오 카바냐스(Lucio Cabañas Barrientos)를 비롯한 급진적인 지식인들이 게레로 주에서 조직한 ‘빈민(貧民)의 당’을 들 수 있다. 한편 틀라텔롤코 사건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루이스 에체베리아(Luis Echeverría Álvarez)는 1969년 5월 집권 <제도혁명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뒤 ‘혁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외쳤지만 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다. 1970년 12월 대통령에 취임한 에체베리아는 1970년대 중반까지 좌익 계열의 활동가를 연행, 납치, 살해하는 멕시코 판 ‘추악한 전쟁’을 펼쳤다.<sup>26)</sup>

24) Kevin J. Middlebrook, *The Paradox of Revolution: Labor, the State, and Authoritarianism in Mexico*,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pp.1-2.

25) 소설의 주인공 아르테미오 크루스는 멕시코혁명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줄고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죽음』(1962)에 나타난 멕시코혁명의 변이 과정」,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제13집, 2002, pp.91-115 참조; Stanley R. Ross, ed., *Is the Mexican Revolution Dead?*, New York: Alfred A. Knopf, 1966.

26) 멕시코 국가 인권위원회는 적어도 좌익 활동가 275명이 보안부대 요원에 의해 납치되었으며 에체베리아 정권(1970-1976) 당시에만 수백 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추악한 전쟁’에 연루된 멕시코의

틀라텔콜코 학살을 계기로 친혁명파의 해석에 대해 본격적인 비판이 가해졌다. 혁명 성인 전(聖人傳) 유형의 연구는 ‘혁명의 제도화’에 실망한 수정주의자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학살 이후 멕시코의 젊은 지식인층은 멕시코가 다른 라틴아메리카의 권위주의 체제와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 때 등장한 이른바 ‘좌파 수정주의적’ 해석의 대표주자인 아르날도 코르도바와 아돌포 히이는 여러 세력의 투쟁으로 탄생한 ‘혁명 정부’가 영웅숭배와 ‘혁명 신화’를 보수적인 체제의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멕시코혁명을 근대성과 사회 정의를 추구하려는 합의 과정으로 선전하면서, 대중을 포섭, 약화시키는 통합 기제를 구축했다고 비판한다.<sup>27)</sup> 이들에게 멕시코혁명은 사회 복지를 희생시키면서 자본주의적 성장을 추구하는 거대한 유일 정당을 배태했을 뿐이었다.<sup>28)</sup>

친혁명파와는 달리 수정주의적 연구자들은 혁명을 ‘대반란’이나 중앙집권화 과정으로 해석한다. 멕시코혁명을 ‘대반란’으로 규정한 라몬 루이스는 1910년 마테로의 봉기를 혁명의 출발점으로 보는 대부분의 논자와는 달리 무정부주의자 마곤(Magón) 형제가 이끈 <멕시코 자유당>의 활동에 주목해 ‘대반란’의 기점을 1905년까지 올려 잡는다.<sup>29)</sup> 루이스에 따르면 혁명이란 통치자의 교체를 넘어 한 사회의 사회·경제 구조를 변혁하는 일대 사건인데, 마테로, 카란사, 오브레곤 등 멕시코의 지도자들은 기껏해야 ‘반란의 우두머리’일 뿐이었고 의식적인 혁명 구상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루이스는 1911년-23년 멕시코의 폭력 사태를 ‘대반란’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정확한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루이스에게 멕시코의 사건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예컨대 중·남부 농민 운동의 중심점이었던 사파타는 ‘비정통적 반란자’였지만 그 역시 혁명가로 불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sup>30)</sup>

이와 유사하게 농민 운동을 비롯한 멕시코혁명기 대중 동원의 성격이 과연 근대적인 사회혁명의 범주에 들어맞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가 등장했다. 이른바 ‘보수주의적 수정주의자’로 간주되는 몇몇 논자들은 친혁명파가 혁명의 핵심적 요소로 부각시킨 사파타 운동을 ‘국지적 차원의 방어적 운동’이나 ‘근대성에 반(反)하는 과거 지향적 운동’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프랑소아 게라는 혁명과 1917년 헌법은 “전통적인 세력이 1857년 헌법으로 대표되는 근대적인 급진적 자유주의에 대항한 반격”이라는 도전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이런 관점에서 게라는 사파타 운동이 정치적 행위자가 아니라 ‘촌락(pueblo)이라는 사회적 행위자’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권력에 도달할 수 없는 운동이었고, 근대적인 개인

---

경찰과 관리들은 아직까지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에체베리아는 1998년 2월 의회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보안부대가 틀라텔콜코 학살을 주도했음을 내비쳤다. 그는 군대가 발포명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BBC News, February 4, 1998, <http://news.bbc.co.uk/1/hi/world/americas/53281.stm> 멕시코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1,000여 명에 이르는 좌익 활동가와 급진파가 살해되었다고 알려졌다. 경찰이 구금하고 있던 수백 명의 반정부 인사가 실종되어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있다. BBC News, July 2, 2002, <http://news.bbc.co.uk/1/hi/world/americas/2085301.stm>

27) Arnaldo Córdova, *La ideología de la Revolución Mexicana: La formación del nuevo régimen*, México, D.F.: Ediciones Era, 1973; Adolfo Gilly, trans. by Patrick Camiller, *The Mexican Revolution*, London: Verso, 1983; 이성형, 「멕시코혁명사 연구에 있어서 좌파 수정주의적 해석」,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제1집, 1990, pp.8-9.

28) Mary Kay Vaughan, *Cultural Politics in Revolution: Teachers, Peasants, and Schools in Mexico, 1930-1940*,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97. p.8.

29) Ramón Eduardo Ruíz, *The Great Rebellion: Mexico, 1905-1924*,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0, p.5.

30) Ruiz, op.cit., pp.3-8, 199-200.

을 위해 아시엔다의 분할을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농업혁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sup>31)</sup>

또한 수정주의자들은 멕시코혁명을 자유주의적 성격의 정치 운동 내지 여러 지방에서 발생한 ‘다수의 혁명’으로 기술한다. 더욱이 몇몇 연구자들은 디아스 체제와 혁명 후 체제가 지닌 공통적인 특성, 다시 말해 정치·경제적 중앙집권의 강화라는 측면을 강조해 혁명기가 단지 이런 경향의 일시적 공백기였다고 주장한다.<sup>32)</sup> 이들은 농민혁명가들에 대한 회고적 칭송을 엘리트의 조작과 ‘위로부터 아래로의’ 강제 방식으로 이해한다.<sup>33)</sup> 즉, 멕시코혁명은 근대화와 중앙집권화를 지향한 ‘혁명 정부’에게 막강한 추진력을 제공하면서 가난하고 신을 두려워하며 지역 중심적 성향을 지닌 대중을 분쇄하는 ‘리바이어던’(Leviathan)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sup>34)</sup>

수정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친혁명파가 ‘혁명의 완성’이라고 평가하는 카르데나스 체제 역시 민중의 독자성을 약화시키는 폐쇄적 체제에 지나지 않았다. 카르데나스의 옹호자들은 1940년을 멕시코혁명이 이전 시대, 특히 카르데나스 집권기의 급진적인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온건 선회하는 결정적인 단절의 시점으로 여겼지만, 사실 카르데나스 집권기는 급진적인 운동과 아울러 체제 보존적인 요소를 함께 지닌 시대였다.<sup>35)</sup> 이런 이중성은 1938년 3월 혁명 정당의 개편(PNR→PRM)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sup>36)</sup> 또한 카르데나스는 ‘마키아벨리적인 민주주의자’로서 담합 기제를 통해 노동자와 농민층을 동원, 조작하는 통치자였다.<sup>37)</sup> 1920년대 중반 이래 서부 지방의 가톨릭 수호 투쟁을 군사력으로 진압한 ‘소노라 왕조’와는 달리 카르데나스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교육’을 통해 교화를 시도했으나 이것 역시 농민 문화를 경시하고 세속적인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일종의 ‘문화투쟁’이었다.<sup>38)</sup> 결국 카르데나스 체제는 농업혁명의 절정이 아니라 농민의 패배, 자본주의 발전과 부르주아지의 승리를 가져온 체제였다. 코르도바의 가장 혹독한 비판에 따르면 카르데나스는 ‘자본주의적 역모(逆謀)의 예언자’이며, “멕시코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를 패배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31) François X. Guerra, *México: Del Antiguo Régimen a la Revolución II*,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88, pp.266-275.

32) David C. Bailey, “Revisionism and the Recent Historiography of the Mexican Revolution,”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58 (1), 1978, p.73.

33) Alan Knight, “Cardenismo: Juggernaut or Jalopy?”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6 (1), 1994, pp. 76, 91; Adrian A. Bantjes, “Idolatry and Iconoclasm in Revolutionary Mexico: The De-Christianization Campaigns, 1929-1940,” *Mexican Studies/Estudios Mexicanos* 13 (1), 1997, p.120.

34) Alan Knight, “Revolutionary Project, Recalcitrant People: Mexico, 1910-1940,” in Jaime E. Rodríguez O., *The Revolutionary Process in Mexico: Essays on Political and Social Change, 1880-1940*, Los Angeles: UCLA Latin American Center Publications, 1990, p.230.

35) Lyle C. Brown, “Cárdenas: Creating a Campesino Power Base for Presidential Policy”, in George Wolfskill and Douglas W. Richmond, eds., *Essays on the Mexican Revolution: Revisionist Views of the Leader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9, pp.102-136 참조; Knight, “Cardenismo,” pp.73-74.

36) 줄고 「연장된 카르데나스 체제」, p.96.

37) Alicia Hernández Chávez, *Historia de la Revolución Mexicana, 1934-1940: La mecánica cardenista*, México, D.F.: El Colegio de México, 1979, p.4.

38) Marjorie J. Becker, “Black and White and Color: Cardenismo and the Search for A Campesino Ideology,” in Daniel H. Levine, ed., *Constructing Culture and Power in Latin America*,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3, pp.156-157; Knight, “Cardenismo,” pp.88, 100.

모든 것을 삼켜버린 ‘리바이어던’을 만들어낸” 인물이었다.<sup>39)</sup>

#### IV. 탈(脫)수정주의 해석과 ‘새로운 문화사’ 연구

1980년대 말 친혁명파와 수정주의적 해석을 넘어 멕시코혁명과 혁명 후 체제의 실체와 그 성격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려는 시도가 등장했다. 탈(脫)수정주의 해석이라고 부르는 이 접근은 친혁명파의 민주주의적 테제와 수정주의적 해석의 종합, 즉 ‘위로부터 아래로’와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식을 결합시킨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sup>40)</sup> 혁명 후 체제의 권력의 강도, 농촌과 농민의 균질성, 그리고 정부에 의한 농민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진다. ‘좌파 수정주의적’ 해석에서 강조한 대로 혁명을 통해 등장한 중앙집권적 국가는 전능한 ‘리바이어던’으로서 대중을 조작하거나 자의로 동원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가? 과연 농민층은 국가가 주도하는 중앙집권화 과정의 일방적인 희생양이었는가? 농민층은 공격적이고 근대화한 국가에 맞서 전근대적인 전통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려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는가? 또한 각 지방 농민들의 대응 양태는 동질적이었는가?

앨런 나이트는 수정주의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혁명기에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은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으며 위로부터의 강제뿐만 아니라 적응과 협상을 요구하는, 완만하고 때로는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 1930년대 멕시코 ‘국가’는 사실 반대자나 지지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미약한 변화의 매개체였으며 사회 전체에 단일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강압적 수단을 강구할 정도로 강력한 ‘리바이어던’이 아니었던 것이다.<sup>41)</sup> 1994년 길버트 조셉과 다니엘 누젠티는 국가 형성의 ‘일상적 형태’에 주목한 공동 연구를 통해 탈수정주의 접근에 박차를 가했다. 이 공동 연구는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지방 차원으로 초점을 이동시킨 점에서 수정주의적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국가와 농민의 관계를 이해하는 관점은 사뭇 달랐다. 수정주의적 견해가 혁명 후 체제의 지배 세력과 농민 사이의 갈등을 경시하는 대신 국가의 주도성을 강조하며 혁명을 국가 형성의 전국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반면, 탈수정주의 접근은 국가와 농민층 간의 갈등과 균열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펼친 창조적인 정치문화와 활동을 탐색하면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제한되는 권력관계의 맥락을 짚고자 했는데, 연구자들에 따르면 혁명과 국가 형성 과정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은 역동성을 드러냈고 농민들은 다양한 양태의 반응을 보였다. 결코 다루기 쉽지 않은 농민 대중은 지배 세력이 강력하게 추진한 국민 동질화 작업을 방해하면서 ‘혁명의 제도화’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이었다.<sup>42)</sup>

그 뒤에도 혁명 후 체제의 민족주의적, 문화적 통합 전략, 특히 ‘사회주의적 교육’과 반교권주의, 원주민 정책에 각 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즉 지방 차원의 투쟁과 적응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카르데나스 체제와 미초아칸 농민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주목한 마조리 베커는 혁명 후 체제와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시키는데 미초아칸 농민들이 담당할 역할을 강조한다. 베커에 따르면 농민들이 카르데나스에게 제공한 ‘문화적 지식’이 없었다면 아마 카르데나스는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미초아

39) Arnaldo Córdova, *La política de masas del cardenismo*, México, D.F.: Ediciones Era, 1974, p.180.

40) Gilbert Joseph, *Revolution from Without: Yucatá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1880-1924*,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88, p.xxiii.

41) Knight, “Revolutionary Project,” pp.230, 254; Knight, “Cardenismo,” p.106.

42) Gilbert M. Joseph and Daniel Nugent, eds., *Everyday Forms of State Formation: Revolution and the Negotiation of Rule in Modern Mexico*,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4.

간 농민들은 ‘문화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일당 지배 체제를 침식시키거나 멕시코 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자본주의적 지배를 약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카르테나스에게 이데올로기적 순응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표현의 공존이 혁명 후 국가 체제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달리 말해 혁명 후 체제와 농민들의 상호작용과 협상은 새로운 헤게모니적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원동력이었다.<sup>43)</sup> 또 ‘혁명 정부’가 주도한 사파타 숭배의 ‘장기지속’을 살펴본 브룬크의 연구 역시 사파타의 신화화는 국가의 여론 조작이나 대중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의 수렴 또는 협상의 산물이었다고 결론짓는다.<sup>44)</sup>

1930년대 소노라 주의 정치, 경제, 문화사를 다룬 애드리언 벤체스에 따르면, 혁명 후 체제를 ‘리바이어던’으로 보는 수정주의적 견해는 왜 여전히 많은 멕시코인들이 카르테나스의 이상주의를 지지하고 그 신화에 호응하는지 설명하는데 약점을 드러낸다. 벤체스가 보기에 친혁명파의 칭송은 카르테나스 체제와 이전 정권과의 연속성을 간과하며 카르테나스 개혁이 지니는 권위주의적 측면을 경시하는 반면, 수정주의적 해석은 카르테나스의 의도와 ‘혁명의 제도화’의 장기적 귀결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벤체스는 영웅 신화뿐만 아니라 ‘검은 전설’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카르테나스주의가 보통 사람들에게 정치·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을 주장한다.<sup>45)</sup> 벤체스는 혁명의 요람이자 ‘소노라 왕조’의 터전인 소노라 주에서 시행된 카르테나스의 개혁에 농민과 노동자의 참여가 두드러졌음을, 특히 야키(Yaqui) 원주민들이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sup>46)</sup> 또 이 과정에서 소노라 주민들은 카르테나스가 그들에게 준 경제적 혜택을 활용해 전(前)자본주의적 종족 유대를 강화하고 때로는 위로부터 강요된 급진적인 정책에 반대하면서, 달리 말해 ‘혁명 정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멕시코의 정치문화를 조정하고 손질하는데 이바지했다.

벤체스는 “급진적인 카르테나스 체제는 엘리트의 ‘위로부터 아래로’의 기획이었던 만큼이나 대중 활동의 반영이기도 했다.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지방 세력은 새로운 국가 형성의 중요한 행위자(agency)였다”고 주장하면서 카르테나스 체제를 비롯한 혁명 후 국가의 개혁 정책이 각 지방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지방 차원의 반응이 국가와 국민의식 형성에 기여한 바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벤체스에 따르면 농업개혁이나 노동자의 정치 참여와 같은 카르테나스 시대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민주적 정치문화의 확산을 가져오지 못했음에도, 오늘날 카르테나스의 이미지는 그의 임기 당시보다 더 대중적인 호소력이 있는 듯하다. 그만큼 카르테나스의 신화를 깨뜨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는 혁명 후에도 여전히 존속한 멕시코 사회의 유토피아적 전망과 실천의 노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카르테나스주의에 내재한 다양한 목소리, 즉 ‘수많은 카르테나스주의’(many cardenismos)를 탐색해야 한다고 역설하는데,<sup>47)</sup> 이 제안은 비단 카르테나스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멕시코혁명의

43) Marjorie Becker, *Setting the Virgin on Fire: Lázaro Cárdenas, Michoacán Peasants, and the Redemption of the Mexican Revolutio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p.161-162.

44) Brunk, op.cit., p.469.

45) Adrian A. Bantjes, *As If Jesus Walked on Earth: Cardenismo, Sonora, and the Mexican Revolution*,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1998, p.xiv.

46) Ibid., pp.213-215.

47) Ibid., pp.xv-xvi, 224-225.

성격과 본질에 대한 폭넓은 논쟁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초아칸 주의 사례를 연구한 보이어는 1920-1930년대 ‘혁명 정부’와 농촌 문화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새로운 농민의 정체성을 형성했는지 검토한다. 보이어 역시 농민의 적극적인 역할과 주도성을 강조한 고전적 해석을 비판하는 동시에 ‘혁명 정부’와 기층 민중의 일방적 관계에 무게를 둔 수정주의 해석의 약점을 넘어서고자 한다. 당시 급진적 성향의 주지사 프란시스코 무히카(Francisco J. Múgica)와 카르테나스는 미초아칸 농민들을 균질적인 의식을 지닌 단일 계급으로 보면서 농민 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켰으나, 농민들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일정한 수정을 가해 예컨대 반교권주의 같이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물리치는 협상의 사례를 선보였다.<sup>48)</sup>

더욱이 유행처럼 확산된 ‘새로운 문화사’ 연구를 통해 멕시코혁명의 훨씬 복잡한 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탈수정주의적 접근에 힘을 보탠 ‘새로운 문화사’ 연구의 공통점은 첫째, 주관성, 탈중양화 경향, 현실의 표상에 대한 강조, 둘째, 문화가 의미를 창조하고 행동을 예고하며 그 자체가 투쟁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점, 셋째, 분산되고 다중적인 권력의 본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권력과 문화가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는 점, 넷째, 방법론으로서 민속지학(ethnography)에 대한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49)</sup> 메리 케이 본에 따르면, 지역 공동체에서 국민국가에 이르는 다양한 공간에 대한 문화적 접근은 정치·경제적 차원의 접근에 비해 더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농민들은 경제적인 조건에서 하나의 계급을 구성하지만 농민 공동체의 문화는 그것이 처한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화사’ 연구를 통해 무엇보다 멕시코혁명을 농민 운동의 전형으로 보는 관점이 의문시되었음은 물론, 강력한 국가의 동원과 수동적인 농민의 체제 적응 및 편입이라는 구도가 무너졌다. 또한 농민을 비롯한 대중의 정치 참여와 농민과 국가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본은 혁명 후 체제의 “문화혁명은 근대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부과가 아니라 역동적인 권력 관계의 맥락 속에서 전개된 지방 차원의 협상”이라고 결론짓는데, 여러 지역의 농민들은 원주민 정책, 토지개혁, 지역 자치와 관련된 국가의 공식적인 담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같은 협상의 무대를 통해 이를 재가공하고 각 지역의 집단적 정체성을 고양하는데 활용했던 것이다.<sup>50)</sup>

‘새로운 문화사’의 등장에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시대적 관심과 유행이 한몫했다. 해체 및 탈중심적 경향, 문화인류학, 하층민(subalterns)과 젠더 연구, 언어로의 전환을 역사학 연구에 응용한 ‘새로운 문화사’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와 문화의 구분이 덜 분명한” 광범위한 ‘사회의 밑바닥’ 역시 역사의 장소라는 점을 실감하게 해 주었다. 또 특히 하층민 집단과 관련된 멕시코혁명과 그 유산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고 뒤집고자 했다.<sup>51)</sup> 나이트는 ‘새로운 문화사’란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새로운 시도인지 검토하면서 ‘새로운 문화사’의 몇 가지 특징을 하층민에 대한 관심, 행위자(agency), 정치의 배제를 지향한 사회사와 달리 정치의 재론(再論), 심성과 표상, 담론 및 텍스트 비판, 역사학과 인류학 또는 지리학의 접목 같은 학제적 영향 등으로 요약한다.<sup>52)</sup> 말하자면 ‘새로운 문화사’는

48) Christopher R. Boyer, *Becoming Campesinos: Politics, Identity, and Agrarian Struggle in Postrevolutionary Michoacán, 1920-193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49) Mary Kay Vaughan, “Cultural Approaches to Peasant Politics in the Mexican Revolution,”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79 (2), 1999, p.275.

50) Ibid., pp.291-292, 296.

51) Van Young, op.cit., pp.147, 162-163.

“문자를 있는 그대로 믿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상징에 민감하지 않은” 경험적 또는 실증주의적 관점에 도전한 것이었다.<sup>53)</sup>

‘새로운 문화사’에 대한 비판자들은 그것이 구사하는 개념과 문체, 어의(語義)의 모호성, 특히 전문용어의 과도한 사용에 대해 지적한다. 수전 소콜로우에 따르면 헤게모니, 젠더, 해체, 하층민, 행위자, 공간, 인류학과 역사 간의 대화 등은 새로운 분석 범주가 아니라 오래된 범주를 전문 용어로 새롭게 표현한 것 일뿐이다. 또 하층민의 다양한 존재와 투쟁 양태에 대한 관심에 비해 엘리트를 단일한 실체로 파악하거나 엘리트의 상징이나 의미가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반(反)엘리트적 접근을 보여준다. ‘새로운 문화사’ 연구자들의 지향점은 과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고수하려 한 경제적 결정 구조를 ‘문화적으로 구축된 구조’로 교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sup>54)</sup> 또한 스티븐 헤이버는 ‘새로운 문화사’ 연구가 주목하는 하층민들은 문자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과 활동의 의미를 검토하기 위한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토대가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새로운 문화사’ 연구자들은 “모호하고 모순적인 사회과학 이론과 사실이 불확실하다는 역사적 전제, 즉 두 세계의 최악”을 활용해 독자들을 설득할 수 없는 ‘인식 체계’를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대안으로서 이른바 ‘과학적 접근’을 역설한다.<sup>55)</sup>

이런 주장에 대해 나이트는 ‘새로운 문화사’에서 엿보이는 개념의 불명확성을 지적한 것은 타당하지만, ‘과학적 접근’이란 수량화된(quantitative) 역사 또는 좁은 의미의 실증사학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행을 이끄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마찬가지로 극단일 수 있다고 언급한다.<sup>56)</sup> 또 맬론은 ‘새로운 문화사’가 기존의 접근과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경험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증거를 분석하고 서술을 정식화하는데 새로운 수단을 고안하고 활용하고자 애쓰기 때문이라고 응수한다.<sup>57)</sup>

## V. 결론

이제까지 멕시코혁명과 혁명 후 체제의 성격에 대해 그동안의 해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았다. 친혁명파 해석은 멕시코혁명을 농민층이 활약한 ‘아래로부터의 사회혁명’으로 규정하려는 반면 수정주의 연구자들은 중앙집권화와 자본주의적 근대화로 귀결된 ‘위로부터 혁명’의 일방적 성격을 비판한다. 1980년대 말부터 등장한 탈수정주의적 해석은 민족주의적 성향의 민중혁명이라는 과잉규정과 아울러 국가와 대중의 관계를 단순한 대립 구도에서 이해한 수정주의적 접근을 넘어서 지배 세력과 대중이 갈등과 협상, 적응을 통해 새로운 혁명 후 체제를 형성해가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탈수정주의적 접근에 따르면 혁명 후 체제의 정치와 문화를 형성한 것은 단지 혁명 엘리트의 청사진이 아니라, 비록 그 과정

52) Alan Knight, “Subalterns, Signifiers, and Statistics: Perspectives on Mexican Historiography,”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37 (2), 2002, pp.140-148.

53) 피터 버크 (조한욱 역), 『문화사란 무엇인가?』, 길, 2005, p.205.

54) Susan Migden Socolow, “Putting the ‘Cult’ in Culture,”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79 (2), 1999, pp.360, 362.

55) Stephen H. Haber, “The Worst of Both Worlds: The New Cultural History of Mexico,” *Mexican Studies/Estudios Mexicanos* 13 (2), 1997, pp.367, 383.

56) Knight, “Subalterns, Signifiers,” pp.153-154.

57) Florencia E. Mallon, “Time on the Wheel: Cycles of Revisionism and the ‘New Cultural History,’”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79 (2), 1999, p.337.

이 불균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지배 엘리트와 결코 수동적이지 않은 지방민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었다.

또한 탈수정주의적 해석은 ‘수많은 멕시코’나 ‘수많은 카르데나스주의’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멕시코혁명의 다양한 지방적 조건, 그것에서 비롯되는 투쟁의 다양한 층위와 양태, 그리고 지방적 색채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이런 의미에서 탈수정주의적 접근은 자발적으로 조직된 아래로부터의 농민 봉기를 강조하는 고전적 해석과 ‘위로부터의 강제’에 초점을 맞춘 수정주의적 해석을 넘어 멕시코혁명과 혁명 후 체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문화사’ 또한 멕시코혁명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기존의 포괄적인 역사 서술의 빈틈을 메우며 때로는 전복을 시도하는 ‘새로운 문화사’는 전문 용어의 애용과 개념상의 모호성, 그리고 ‘결을 거슬러 읽는’(read against the grain) 증거의 해석 문제 때문에 비판받지만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한 하층민들의 활동이 지니는 의미와 상징을 포착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 앞으로 멕시코혁명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감안해 더욱 다양한 지방 차원의 사례에 주목하면서 정치권력의 복잡한 작동 방식을 살펴보고 나아가 새로운 종합적인 서술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문서 자료의 발굴뿐 아니라 각종 증언을 활용한 1980년대 이래 멕시코 연구자들의 지방사 연구 성과에 의존해야 하며, 본의 지적대로 최근까지 몇몇 인물들에 국한된 영·미 학계와 멕시코 학계 사이 연구 교류의 폭을 더 넓히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58)</sup>



---

58) Vaughan, “Cultural Approaches,” pp.304-305.

참고문헌

- 박구병(2002), 「연장된 카르테나스체제: 라사로 카르테나스(Lázaro Cárdenas)와 멕시코 정치의 탈군사화, 1938-1945」, 『서양사론』 제72호, 75-105.
- \_\_\_\_\_(2002),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죽음』(1962)에 나타난 멕시코 혁명의 변이 과정」,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제13집, 91-115.
- 옥타비오 파스 (손관수 옮김)(1990), 『고독한 미로』, 신원문화사.
- 이성형(1990), 「멕시코혁명사 연구에 있어서 좌파 수정주의적 해석」,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제1집, 5-23.
- 피터 버크(조한욱 역) (2005), 『문화사란 무엇인가?』, 길.
- Bantjes, Adrian A.(1997), “Idolatry and Iconoclasm in Revolutionary Mexico: The De-Christianization Campaigns, 1929-1940,” *Mexican Studies/Estudios Mexicanos* 13 (1), 87-120.
- \_\_\_\_\_(1998), *As If Jesus Walked on Earth: Cardenismo, Sonora, and the Mexican Revolution*,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 Becker, Marjorie(1993), “Black and White and Color: *Cardenismo* and the Search for a Campesino Ideology,” in Levine, Daniel H., ed., *Constructing Culture and Power in Latin America*,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55-170.
- \_\_\_\_\_(1995), *Setting the Virgin on Fire: Lázaro Cárdenas, Michoacán Peasants, and the Redemption of the Mexican Revolutio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ezley, William H., Cheryl English Martin, and William E. French, eds.(1994), *Rituals of Rule, Rituals of Resistance: Public Celebrations and Popular Culture in Mexico*,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 Boyer, Christopher R.(2003), *Becoming Campesinos: Politics, Identity, and Agrarian Struggle in Postrevolutionary Michoacán, 1920-193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rown, Lyle C.(1979), “Cárdenas: Creating a Campesino Power Base for Presidential Policy”, in Wolfskill, George and Douglas W. Richmond, eds., *Essays on the Mexican Revolution: Revisionist Views of the Leader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02-136.
- Brunk, Samuel(1998), “Remembering Emiliano Zapata: Three Moments in the Posthumous Career of the Martyr of Chinameca,”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78 (3), 457-490.
- Camín, Héctor Aguilar & Lorenzo Meyer, trans. by Luis Alberto Fierro(1993), *In the Shadow of the Mexican Revolution: Contemporary Mexican History, 1910-1989*,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Collier, Ruth Berins and David Collier(1991), *Shaping the Political Arena: Critical Junctures, the Labor Movement, and Regime Dynamics in Lati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órdova, Arnaldo(1973), *La ideología de la Revolución Mexicana: La formación del nuevo régimen*, México, D.F.: Ediciones Era.
- \_\_\_\_\_(1974), *La política de masas del cardenismo*, México, D.F.:

- Ediciones Era.
- González y González, Luis(1984[c1972]), *Pueblo en vilo: Microhistoria de San José de Gracia*,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Guerra, François X.(1988), *México: Del Antiguo Régimen a la Revolución II*,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Haber, Stephen H.(1997), "The Worst of Both Worlds: the New Cultural History of Mexico," *Mexican Studies/Estudios Mexicanos* 13 (2), 363-383.
- Hamilton, Nora(1982), *The Limits of State Autonomy: Post-Revolutionary Mexico*,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rnández Chávez, Alicia(1979), *Historia de la Revolución Mexicana, 1934-1940: La mecánica cardenista*, México, D.F.: El Colegio de México.
- Joseph, Gilbert M.(1988), *Revolution from Without: Yucatá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1880-1924*,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Joseph, Gilbert M. and Daniel Nugent, eds.(1994), *Everyday Forms of State Formation: Revolution and the Negotiation of Rule in Modern Mexico*,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Knight, Alan(1986), *The Mexican Revolution Vol 1: Porfirians, Liberals, and Peasa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6), *The Mexican Revolution Vol 2: Counter-Revolution & Reconstr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Revolutionary Project, Recalcitrant People: Mexico, 1910-1940," in Jaime E. Rodríguez O., *The Revolutionary Process in Mexico: Essays on Political and Social Change, 1880-1940*, Los Angeles: UCLA Latin American Center Publications, 227-264.
- \_\_\_\_\_ (1992), "Revisionism and Revolution: Mexico Compared to England and France," *Past & Present* 134 (1), 159-199.
- \_\_\_\_\_ (1994), "Cardenismo: Juggernaut or Jalopy?"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6 (1), 73-107.
- \_\_\_\_\_ (2002), "Subalterns, Signifiers, and Statistics: Perspectives on Mexican Historiography,"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37 (2), 136-158.
- Leal, Juan Felipe(1975), *México: estado, burocracia y sindicatos*, México, D.F.: Ediciones el Caballito, 1975.
- Mallon, Florencia E.(1999), "Time on the Wheel: Cycles of Revisionism and the 'New Cultural History,'"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79 (2), 331-353.
- Middlebrook, Kevin(1995), *The Paradox of Revolution: Labor, the State, and Authoritarianism in Mexico*,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ires, Fernando(1988), *La Rebelión Permanente: Las revoluciones sociales en América Latina*, México, D.F.: Siglo Veintiuno Editores.
- O'Malley, Irene(1986), *The Myth of the Revolution: Hero Cult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xican State, 1920-1940*, New York: Greenwood Press.

- Ruíz, Ramón Eduardo(1980), *The Great Rebellion: Mexico, 1905-1924*,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Socolow, Susan Migden(1999), "Putting the 'Cult' in Culture,"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79 (2), 355-365.
- Van Young, Eric(1999), "Making Leviathan Sneeze: Recent Works on Mexico and the Mexican Revolution,"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34 (3), 143-165.
- Vaughan, Mary Kay(1997), *Cultural Politics in Revolution: Teachers, Peasants, and Schools in Mexico, 1930-1940*,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_\_\_\_\_ (1999), "Cultural Approaches to Peasant Politics in the Mexican Revolution,"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79 (2), 269-305.

### <Abstract>

A Reflection on the Current Research Trend of the Mexican Revolution With a Focus on English & American Academia

Park, Koobyong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recent research trend of the Mexican Revolution with a special emphasis on English & American academia. As exemplified in a popular title "the Mexican Revolution, 1910-1940," many works have claimed that after 1940, the institutionalized Revolution began to change its preceding radical orientation. According to the populist interpretations by pro-revolutionists, the Mexican Revolution was considered to be a social revolution from the bottom up, for instance, represented by the Zapatista peasant movement, and a consensual process for modernity and social justice. However, the revisionists, reinforced especially after the *Tlatelolco* massacre in October 1968 in that the so-called "revolutionary police and army" killed more than 200 resistant students, have criticized diverting revolutionary myths and the governing coalition's top-down imposition against the popular will. For them, the Mexican Revolution resulted in a mighty centralizing *Leviathan* that would crush poor, god-fearing, and localized people to turn them into new submissive elements for capitalist development.

Since the late 1980s, a new historical perspective called 'post-revisionist view' has tried to synthesize the populist and revisionist interpretations of the Revolution and post-revolutionary Mexico. Questioning the strength of post-revolutionary regime and the gullibility of the peasants, this new research based on cultural approaches has attempted to understand popular participation in local and national politics, and the cultural dimension of interaction between state and peasantry. Its practitioners tend to rely on the concept of negotiation to grasp this interaction. For example, while the Lázaro Cárdenas presidency (1934-1940) was either extolled as the culmination of the Mexican Revolution in the populist perspective, or

criticized as an effective manipulator of the masses in the interest of modernizing national bourgeoisie by the revisionist interpretations, post-revisionist view has reshaped the era as a contested terrain in that top-down elite planning was in conflict and negotiation with regional popular forces, both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on the way to forming a new Mexican nation.

주제어: 멕시코혁명, 혁명 후 체제, 라사로 카르데나스, 친혁명파 해석, 농민혁명, 수정주의적 해석, '위로부터 아래로의' 강제, 탈수정주의적 접근, '새로운 문화사,' 협상

Mexican Revolution, Post-revolutionary regime, Lázaro Cárdenas, Populist interpretations, Agrarista revolution, Revisionist view, 'Top-down imposition,' Post-revisionist view, 'New cultural history,' Negotiation

K C I